



글자를 품은 그림

윤미경(글), 김동성(그림)/ 다림

● 누군가 자꾸 회원이네 집 담벼락에 욕설과 거친 말들을 빨간 스프레이로 써놓는다. 일러스트 작가인 회원이 엄마는 청각 장애인이다. 그로 인해 사람들과 멀시를 당하고 회원이 모녀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하기도 한다. 엄마는 정성을 다해 그림을 그려 담벼락에 적힌 그 나쁜 말들을 덮고 한 폭의 멋진 그림을 완성하는데 일식이 일어나는 순간과 맞물려 그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1.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별점과 소감을 적어봅시다.

별점	☆ ☆ ☆ ☆ ☆
이유	

2. 등장하는 인물 중 응원이나 격려를 해주고 싶은 인물과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인물을 골라 해주고 싶은 말도 적어주세요.

응원과 격려를 해주고 싶은 인물		충고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인물	
해주고 싶은 응원이나 격려의 말		해주고 싶은 충고나 조언의 말	

3. 회원이는 거친 말을 쓴다고 친구들이 ‘똥입 최회원’이라고 부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여러분을 부르는 별명이 있나요? 별명을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4. 이 책에는 ‘말’을 주제로 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옥자슈퍼 할머니는 회원이에게 ‘말거미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래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너 말거미줄이라고 들어 봤냐?
 ”무슨 거미줄요?“
 ”사람들이 뱉은 말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야. 끈적끈적한 거미줄처럼 여기저기 들러붙어 있단 말여. 특히 나쁜 말들, 너 욕하는 말들은 사라지지 않고 도로 딱 들러붙는당께.“
 ”피! 거짓말!“
 ”너 누구랑 쌈하고 욕하고 나쁜 금방 잊혀지드냐? 헛바닥이든 컷구녕이든 머리통이든 어디에 남더냐 안 남더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런 말들은 안 잊힌다.
 ”거봐라. 너 해꼬지하는 말들은 언젠가는 나를 덮쳐서 움썅달썅 못 하게 칭칭 감겨드는 뱀이여.“

4-(1) 혹시 여러분에게도 잘 잊혀지지 않고 들려붙어 있는 말이 있나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들었던 말인가요?

4-(2) 그 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5. 회원이 엄마는 나쁜 말들 위에 동물을 그려서 그 글자들을 덮습니다. 각각의 단어 위에 어떤 동물이 그려졌는지 알맞게 써주세요.

담벼락에 쓰여진 단어	글자 위에 그려진 동물	담벼락에 쓰여진 단어	글자 위에 그려진 동물
(1) 멍청이		(5) 미친 x	
(2) 바보 바보 바보		(6) 병어리	
(3) 귀머거리		(7) 병신	
(4) 죽어 버려!		(8) 꺼져!	

6. 청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속상한 일을 겪는 회원이 엄마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53쪽에는 회원이와 엄마가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들을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하고 이 책의 중심내용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찾아서 적어주세요.

“왜 이렇게 무성론 동물들만 잔뜩 그려 대는 거야?”

‘ _____.’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는 안 됐지만 아무튼 엄마는 글자의 영혼을 그리는 중이라고 했다.

‘ _____.’

벽화를 그리는 동안 엄마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나중엔 나도 그러려니 했다. 어쩌면 엄마는 벽을 도며 도를 닦고 있는지도 모른다.

7. 회원이네 담벼락에 빨간 스프레이로 그렇게 나쁜 말들을 써놓았던 범인은 바로 기찬이 오빠입니다. 회원이는 기찬이 오빠를 짝사랑하는 마음도 가졌었는데요. 기찬이가 겉모습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많이 한 것을 뒤늦게 알게된 회원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8. 그림 속으로 들어간 회원이는 어린아이 시절의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오히려 언니가 되어버린 회원이는 함께 ‘소원꽃’을 찾아 나서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어린 시절의 부모님을 만난다면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요? 평소에 생각했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떠올려 적어주세요. (이번 기회에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9. 아래의 글을 읽고 회원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주세요.

예전엔 엄마와 이렇게 손을 잡고 자주 걸었다.

엄마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지도, 그것이 불편한지도 몰랐던 때. 말이 아니라 눈빛만으로도 뭐든 통했던 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우아한 왕비고 나는 예쁘고 귀여운 공주라고 생각했던 때.

언제부터인가 나는 엄마 손을 잡아 주지 않았다.

“너희 엄마 병어리야?”

엄마가 말 대신 손으로 말하는 걸 본 친구들이 놀리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엄마가 왕비가 아니라 장애인이란 걸 느낀 순간, 나는 어깨가 작아졌다. 공주에서 불품없는 하녀가 된 기분이었다.

10. 책에서 인상 깊었던 점과 애착이 가는 등장 인물을 중심으로 감상문을 써 봅시다.